

# 공간클럽 - 09

##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얼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능지도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 a. 쉬운 공간만들기
- b. 새로운 공간만들기
-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 a. 공간의 구별
- b. 공간의 대립개념

10회

- a. 공간의 경계
- b. 공간의 관계
- c. 공간의 모듈
- d. 공간의 비례

11회

- a. cyber space
- b. space syntax
- c. spatial behavior

12회

- a. 공간속의 기동
-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문법

## a. 공간의 구별

### Differentiation of space

건축공간을 구별하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지원받는 공간(served space)과 지원하는 공간(servant space)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건축공간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사무 공간이나 주거공간, 거실 등의 served space와 그것을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기계실, 덕트, 창고 등의 servant space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served space와 servant space는 Mies van der rohe 나 Louis Kahn이 처음 그 개념을 소개한 바 있다. 미스 반데로에가 크라운 홀에서 무주공간으로 대형의 가용공간을 제안하면서, 화장실이나 부속되는 공간을 모두 지하에 설치한 경우나, 루이스 칸이 리처드 실험센터에서 가용 실험공간을 중앙에 배열하고 부속되는 설비라인을 독립된 덕트공간으로 처리하여 건물의 외곽에 설치한 경우 그리고 쏘크 연구소에서 가용 실험공간을 위해 모든 설비 시설을 별도의 층층으로 두어 처리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개별 기능실로서만 구별하며 건축공간을 생성하던 건축가들에게 이와 같은 공간의 구별은 사실 매우 의미있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건축설계 행위의 대상이 개실에서 성격화된 공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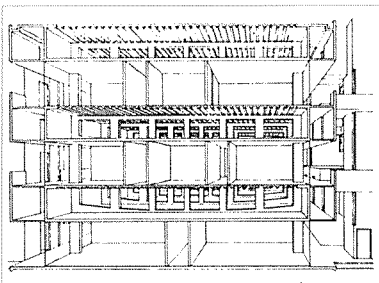


그림 1. 쏘크연구소의 실험공간과 설비층이 구별된 모습

20세기 초 공장설계를 통해 설계의 대상이 공장내의 개별공간이 아니라 공장생산품의 제조 프로세스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산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그것을 공간으로 치환되도록 설계한 사례에서도 우리가 설계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고 하겠다.

건축설계를 하면서 물을 쓰는 wet zone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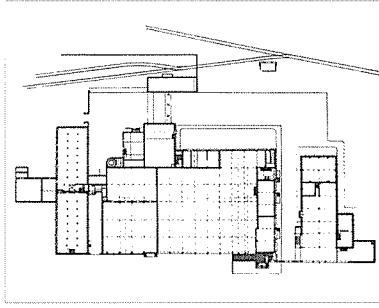


그림 2. 제조 프로세스가 디자인된 그로피우스의 Fagus 공장(1911년)

을 사용하지 않는 dry zone을 구별하기도 하고, 외부와 연계된 곳에서 public space를, 개인적 사생활 공간을 private space로 구별하며 건축공간의 개념을 잡아가지도 하지만, 개별 실 중심으로 건축공간을 이해하는 것과 구별된 공간 개념을 통해 건축공간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설계의 대상을 다르게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의미변화를 시사한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실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실만을 고민하며, 실을 제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설계가 필요한 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들에 어떠한 값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때, 공간을 의미로서 구별짓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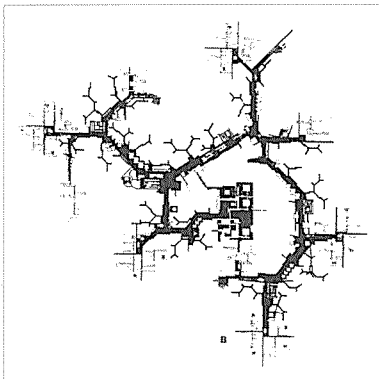


그림 3. 보행자의 네트워크로 디자인된 주택단지-Toulouse-le-Mirail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을 볼 때 사랑방, 안방, 마루, 건넌방 등으로 방을 구별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공간으로서의 분석은 남자 공간과 여자 공간, 또는 양반 공간과 하인 공간으로 구별하여 보는 것이다. 미학적으로는 인영배가 한국전통 건축공간을 분석하면서 폐쇄적 공간과 개방적 공간,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등으로 구별지어 그 값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한국건축을 이러한 값으로 구별함으로써 한국적 의미에서의 공간구별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공간의 구별은 건축공간을 해석하거나 생성하는 중요한 틀이 되고 있다. 공연장 건물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사용정도에 따라 무대 공간과 객석부 공간을 구별함으로써 재미있는 해결책을 보였던 버나드 추미의 동경 제 2국립극장 현상안이나 오히려 무대와 객석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서로 구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다른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던 렘쿨하스의 에듀카토리움은 공간의 구별이 어떤 의미로 건축적 구성에 연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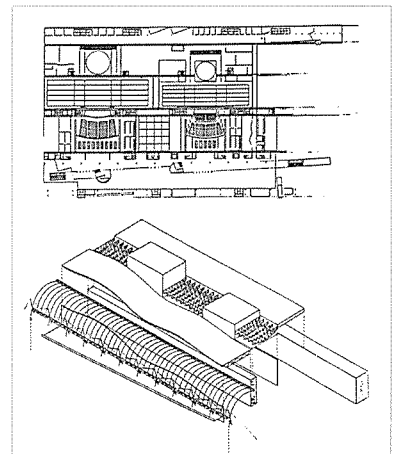


그림 4 공간구별의 의미를 실린 버나드 추미의 동경 제2 국립극장 현상안

요즘은 건축설계 개념을 잡기 위해 건축가가 이와같이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의 구별을 하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태에 이르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공간의 구별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 건축물을 개별실이 아닌 공간으로서 구별하는 것은 건물에 특정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실의 개념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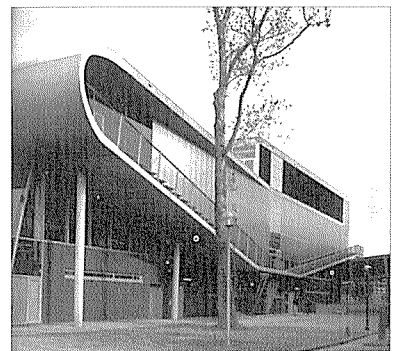


그림 5. 추상적 선형에 의해 공간을 먹고 있는 렘쿨하스의 에듀카토리움

중요한 의미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새롭게 부과되는 의미 자체에 대한 진술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그 의미화의 과정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루이스 칸이 지원받는 공간과 지원하는 공간으로 건물을 분류하는 근원도 자세히 살펴보면 서양건축의 주인공간과 하인공간 체계에서 응용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서브받는 주인공간만이 부각되며, 서브하는 하인공간은 건물의 어디에 위치하는지조차 알 수 없도록 처리된 서양 전통주택의 특징을 현대적인 기능에 맞춰 재해석 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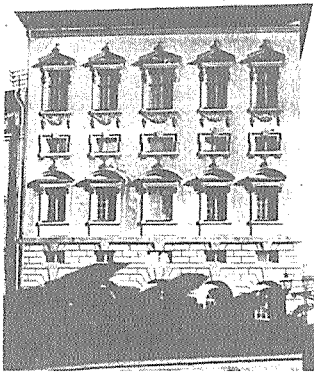


그림 6. 중간층을 보여주는 서양전통의 주택입면

어떤 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served space나 servant space처럼 공간의 대립개념을 설정한다는 것은 건물의 기능이나 의미, 구조, 형태 등에 의해 공간을 구별짓는 방식을 체계화시켜, 그것을 공간의 형태조작과 연결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엔 공간의 구별이 질서와 무질서 공간, 실제와 환상의 공간, 이미지와 언어의 공간, 매개공간에까지 연결된다. 레이어의 개념까지 가면 공간을 성격화하는 틀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만다.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건축의 모순과 비합리성, 전개되는 과정의 복잡성 때문이지만 의미의 상실은 그 존재가치를 무색하게 한다.

### b. 공간의 대립개념

Coordinate Concept of space

공간을 성격화된 공간으로 구별하는 방법으로

몇가지 대립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대립개념은 공간을 만드는 구축적 의미로부터 발생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의한 외적인 이 유나 건축공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부터 생겨날 수도 있다. 이들 개념은 결국, 외부세계로부터 괄호( ) 되는 인간의 건축적 공간에 대한 도전과 적응의 방식으로 자리한다. 자연으로부터 적응되는 부분과 반발하는 부분, 존재의 가치를 알리는 부분과 감추는 부분, 만들기 쉬운 부분과 만들기 어려운 부분...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이와 같은 의미의 연속선상에서 보다 많은 공간의 대립개념이 찾아지고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개방공간과 폐쇄공간

공간에는 개방적 성격을 드러내는 공간과 남들의 시선과 출입으로부터 통제되는 폐쇄적 공간이 있을 수 있다. 개방과 폐쇄의 차이는 순수하게 공간의 폐쇄정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라이버시 개념과 관련되어 폐쇄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하겠다. 즉, 하늘로는 개방되어 있지만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다면 하늘이 막히고 한쪽 벽면이 트인 공간보다 일반적인 폐쇄성은 적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매우 폐쇄적이라고 하겠다. 개방과 폐쇄의 개념이 명확하다면 벽체나 개구부의 적절한 처리에 의해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요즘엔 개방과 폐쇄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반투명 유리벽이나 벽체와 개방부의 반복적 활용 등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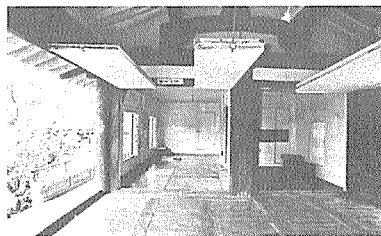


그림 7. 한옥의 개방된 공간

### 2. 사적공간과 공적공간

개인의 공간과 타인과 공유되는 공적인 공간의 조화는 일반 건축물에서 항상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공적인 공간은 길, 복도나 로비처럼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공간이며, 개인적 공간은 외부

로부터 출입이 통제되는 침실이나 욕실 등의 구획된 공간이면서 하늘이나 자연으로 통하는 공간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공간은 건물의 앞과 뒤로서 반대되는 위치에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부가 모두 공적인 경우 사적공간이 중심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보여진다.



그림 8. 튀니지의 도시조직-길과 건물사이의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의 구분을 보여 준다

### 3. + 공간과 - 공간

공간은 형태에 의해 자장을 형성한다는 이론이 있다. 조각물과 같이 드러나는 형태는 +자장을 만들어내며 L 7 와 같이 후퇴되는 형태는 -자장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의 한옥은 개실 내부에 조각물과 같은 형태의 설치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비의 방은 가구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선반형태로서 투과하는 형태의 물건만이 있다. 침구나 옷가지는 벽장을 두어 놓으며 단위 공간내에 설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에는 +자장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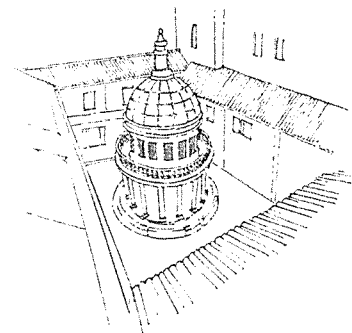


그림 9. + 공간의 예-산피에트로사원의 돔피에토

반면 서양의 주택에는 침대가 있고, 많은 가구를 방을 차지한다. 이들은 각각 자장을 만들어내며 방을 차지한다. 자장의 형성과 사람의 심리구조를

볼 때, -자장이 그 방을 사용하게 될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보이며, +자장은 사람을 형태로 치환(identify)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담장을 설치하며 건물을 자연의 부분으로 놓이게 하는 -적 배치수법을 사용하는 반면, 서양건물은 건물을 +의 요소로서 독립체가 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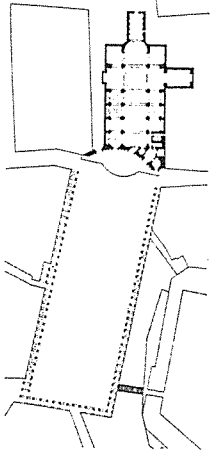


그림 10. -공간의 사례-광장을 만드는 산 암브로지오사원

#### 4.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건물을 설계하면 건물의 내부가 어디며, 문은 어디에 있는가가 고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 없이 건물이 연결될 수도 있다. 기차역은 내외부의 구별 없이 비를 피하는 공간의 연속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싱가포르 같이 더운 나라는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문과 창이 없이 동선의 접근만을 막는 벽으로 내외부가 구별되며, 우리나라 전통 주택의 마루공간이나 중정 공간은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호한 의미로 남아있다. 내외부의 구분은 외부인의 통제나 외부기후환경의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백화점과 노점상의 차이처럼 그렇지 않음으로서 보다 의미있는 공간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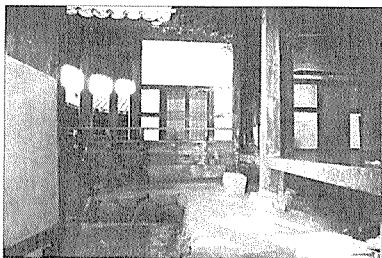


그림 11. 한옥의 내부공간 같은 외부공간

#### 5. 정적 공간과 동적공간

건물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보다 동적인 공간과 보다 정적인 공간으로 나뉘어 지기도 한다. 사무소 건물의 로비 공간이 동적이라면 사무공간은 보다 정적이라고 하겠다. 동적인 공간은 움직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넓고 시원스런 느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적인 공간은 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건물보다는 공원 등의 조성에 보다 어울리는 공간의 구분이지만 복잡한 건물에서도 이와 같은 공간구분은 가능할 것이다.

#### 6. 습한 공간과 건조한 공간

화장실과 주방이 건물내로 들어오면서 물을 사용하는 이들 공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구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파이프 샤프트의 증설이나 방수문제, 제습문제의 해결이 그다지 어려운 장애점이 되지 않으면서 건물의 사용에 편리하다면 굳이 물을 사용하는 습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별하지 않는다. 건물의 기술적 인자가 중요하던 시절에 기술적 서포트가 되는가 여부에 의해 공간을 구별하는 재미있는 사례로 남아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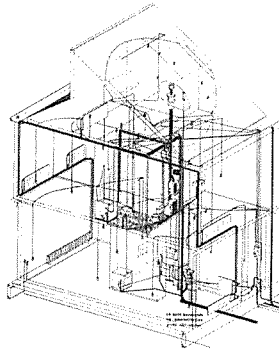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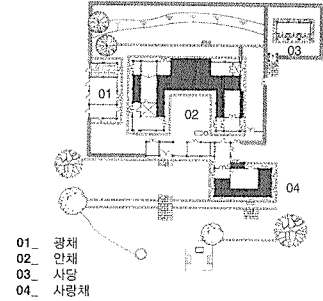


그림 12. 주택내부에 들어있는 도관의 배열

#### 7. 여름공간과 겨울공간

우리나라는 여름에 무척 덥고 겨울에 무척 춥다. 한반도의 위치도 남쪽으로는 일본과 대만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위치이며, 북쪽으로는 만주와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추운 곳이다. 신영훈은 마루와 온돌의 복합체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한옥 건축을 더운 지방의 루마루 구조와 추운 지방의 온돌구조가 결합한 형식으로 해석한 적이 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한옥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공간(온돌방)이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공간(마루, 툇마루)이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특징이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건물 내의 여름공간과 겨울공간의 구분은 자연과 친화되며 자연에 적응되는 건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01. 경채  
02. 안채  
03. 사랑채  
04.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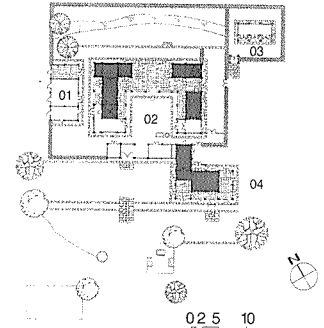


그림 13. 운중고택의 여름공간과 겨울공간

이와 같은 대립되는 공간개념은 (중심공간, 주변공간), (일상공간, 일탈공간), (언어 A 공간, 언어 B 공간) 등과 같이 관찰자의 능력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미세한 개념의 차이를 읽어내는 안목에 의해 아직까지 쉽게 구분되지 않았던 대립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기존 공간을 해석해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간의 대립되는 극성은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건축공간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제시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사고의 틀과 같이 이분법적 사고체계는 극을 통해 문제의 해석에 유연성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은 그와 같이 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공간의 대립적 개념이 무한의 범주에 있고, 우리의 일상적 건축공간은 무한의 극성사이에 하나의 괄호( )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일 것이다. ㉡